

084장-렘24장1-3무화과두광주리-jer101103

무화과 두 광주리

2010년 11월 3일

본문 말씀: 예레미야 24:1-3

(렘 24:1, 개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렘 24:2, 개역)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렘 24:3, 개역)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라』

인간은 누구나 좋은 것이 좋지 나쁜 것을 좋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 자체가 늘 좋은 나라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나라를 둘로 나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 인간들이 늘 좋은 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그 심보를 비켜가십니다.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들의 자기 영광으로 되돌아오기에 결코 하나님 영광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좋은 쪽으로 해놓고서는 구실과 핑계는 자신의 이러한 의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창세 전부터 꿰뚫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의도적으로 동일한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에서 좋은 무화과와 악한 무화과를 구별해내십니다. 그것도 순차를 지키면서 구별하십니다. 먼저 나온 것을 좋은 무화과이게 하고 뒤에 나오는 것을 나쁜 무화과이게 합니다. 그것은 곧 유대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두 종류로 갈라지는 것이 다 그 ‘좋은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지는 유대 백성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은 정든 고향땅을 등지고 우상이 준비한 이방나라에 포로잡혀가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라고 단정짓는 것이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수는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

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왕직이 갖추어진 것은 다윗이 최초입니다. 그 전에는 왕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의 특징은 개인적인 자질이 결코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능히 이방민족을 쳐부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면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왕이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인간 왕이 자기 생각을 법을 제정해서 백성들을 통치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이미 율법이 있기에 그 율법이 인간의 지도자보다 더 높은 차원을 형성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을 통해서 천하의 몸 쓸 죄인으로 드러내놓고서 진정한 다윗언약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 중의 괴수'로 산다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 정신에 함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지 아니하면 결코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의 운명이 미리 잘 나와있습니다. 신명기 28:36-46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으므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네게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네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계가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고소하게 여기면 안됩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을 살리려 하여 인간의 본질의 자리로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무화과 나무는 포로잡혀 가는 자들이요 나쁜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싶은 자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동행해서 모든 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업에 의해 영광받으시는 방법인 것을 알

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수치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실패하고, 남보다 뒤지면 죽고 싶어합니다.

세상이 자시 원대로 안되는데서 오는 수치심은 말도 다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수치로 몰아넣되 그 수치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점에서 곧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앞에서 더 이상 수치에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은 오늘날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나라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에베소서 2:16-17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던 이방인이던 둘 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행은 곧 우리 성도가 더 이상 정죄함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이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자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보는 기준은 도리어 그 기준으로 인하여 나쁜 무화과 나무를 선호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즉 나쁜 무화과 열매로서 자신의 수치를 자기 식으로 감추는 바로 그것이 악한 무화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예레미야-2009/084강-렘24장1-3무화과두광주리-jer101103.mp3>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예레미야-2009/084강-렘24장1-3무화과두광주리-jer101103.avi>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예레미야-2009/084강-렘24장1-3무화과두광주리-jer101103.hwp>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예레미야-2009/084강-렘24장1-3무화과두광주리-jer101103.pdf>

084강-렘 24장1-3(무화과두광주리)-jer101103-(이근호목사)

2010-11-06 10:38:57 녹취 : 오용익

084강-렘 24장1-3(무화과두광주리)-jer101103-(이근호목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8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4:1-3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뜰 앞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두 광주리를 따게 합니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가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악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무는 한 나무인데 의도적으로 두 종류의 나무를 왜 소개하는 것일까요?

‘애야, 이것이 무야, 배야?’ ‘그것은 무화과입니다.’ 얼마나 답변하기 쉽습니까? ‘이게 무화과야, 포도야?’ ‘무화과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무화과 중에서 좋은 무화과와 악한 무화과를 구분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하면, 하나에서 둘이 나오는 방식이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보기에 그 무화과나 저 무화과나 같이 보이냐?’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다고 보는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에서 좋은 것과 악한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일방적인 자기 욕심이죠, 나는 항상 옳은 편이고 바른 편이고 예수님 편에서 있다고 우기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간다면 ‘그래, 너는 착한 편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너도 내가 하는 일에 동의하고 그 취지를 네가 몰라서 안 되고 꼭 알아야 돼.’라는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것이 뭐냐, 둘로 나눈다는 겁니다. 좀 어렵게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집안에 자식이 둘이 있는데 어느 부모치고 둘 다 공부 잘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하

나눔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꼭 하나 공부 잘하면 나머지 하나는 공부 못하고 하나가 성적이 올라가면 나머지 하나는 내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지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이유를 찾아야 돼요.

예레미야한테는 특별히 이것을 알려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이기에 그런 겁니다. 이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차례예요. 우리도, 왜 하나님께서 동일한 나무에서 한 무화과나무에서 나온 것을 의도적으로 둘로 나누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 이 세상에 이단이 많습시다. 짐쟁이가 많고 안 믿는 사람이 많습시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제대로 안돌아봐서 악한 자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항의할 가능성이 많아요. 부부간에 살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인색하지요.

수십 년을 살아도 남편한테 칭찬을 거의 하지 않는 주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칭찬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청소를 말끔히 하는 것부터 해서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계략은 할 때마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청소를 깨끗이 하게 되면 꼭 아내는 절대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칭찬을 안 해줘요.

‘좀 했네. 그런데 이 옷걸이가 이게 뭘데?’ 이런 식으로 꼭 트집을 잡아서 ‘네가 백날을 해봐라. 내가 너에게 칭찬을 하는지.’ 우리 마음이 꼭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뭔가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제대로 잘했어. 하는 것마다 잘했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고 어떻게 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람에 분주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정신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의 심보를 한 번 봅시다.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까? 이것은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성경 보는데 있어서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 죄송스럽습시다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잘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면 일단 내 영광 챙기고 내 영광 챙기는 그것을 자꾸 무엇으로 간주하고 싶으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끄집어 낸 자체가 ‘내 영광도 알아서 챙겨주세요.’라는,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를 견지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 영광, 이렇게 하나님께 아부하는 쪽으로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자기영광 챙기는 그 순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하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물 건너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꺼내지도 마세요. 평소에 우리가 교회 나와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맘껏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는 일을 실컷 해 놓고 좀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인가요? 어느 쪽이냐는 말이지요. 애가 공부 잘하는 것이 기분 좋습니까, 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분 좋습니까?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명성을 얻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끼어들지 않더라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합니다. 애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돌리겠습니다.’ 하면 ‘그래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애가 또 아프칸 선교하러 가서 일이나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공부하기 싫고 성적도 안 나오니까 신학교 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걱정이 늘어지지요.

교회 일에 재미 붙어서 성적은 아예 내팽개치는 것이 아닌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인간의 영광에 그 몫이 빼앗기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실시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무리 예측하고 예상해도 그것을 다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그 좋은 무화과 보고 좋다고 이야기했고 악한 무화과 보고 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으로 자기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5절,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여기 있고 나쁜 것 여기 있다.’ 이런 순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것과 나중 것을 순서를 정하면서 ‘앞에 것은 어떠냐?’ ‘좋은데요.’ ‘뒤엿것은?’ ‘못쓰겠는데요.’라고 순서를 정하는데 그 순서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요. 1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다른데서는 여호야긴)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고향을 떠나서 남의 땅으로 포로 잡혀 가는 거예요. 포로 잡혀 가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신세 서글픈 겁니다.

그야말로 ‘철사 줄로 두 손 뽕뽕 묶인채로, 뒤 돌아보며 뒤돌아보며, 맨발로 절며절며…….’ 넘어갔다는 미아리고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 다시 고향땅에 못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죽고 영광이 아니라 ‘나는 죽어야 돼.’라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개시가 된 거예요.

‘주여, 사는 게 부끄럽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짹짹 올라가고 ‘하나님, 내 자식은 왜 남의 자식보다 못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지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영광은 추락하는 거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영광을 인간이 갖고 있는 노림수에 빼앗기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서 틀을 잡은 것이 언제인가 하면 다윗이 나올 때부터입니다. 다윗전의 사울은 잠정적이었고 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사짓다가 필요할 때만 왕이 되었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 자리는 하나님이 꼭 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왕으로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울은 왕이라기보다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연장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이방나라에서 왕이 자기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그것을 군주제라 하는데 왕이 하나 있어서 그 왕이 곧 나라고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왕이라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그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지배하는 통치의 법령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라는 사적인 개인보다도 율법이 먼저예요.

그러면 사사나 사울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사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울이나 다 필요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왕께서 지켜주는데 때때로 사사가 등장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의 율법을 폐기처분했고 거기에 관심 없다는 식으로 되니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사나 왕을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왕입니다.’를 보여주고 얼른 그 자리에서 빠져야 돼요. 그래서 한시적이어야 됩니다. ‘사사도 그렇고 왕도 그렇게 일단 자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 모르겠지만 사사는 개인자질 문제가 아니고 성신이 임하면 쪼다라도 됩니다.

만일에 어떤 마을에서 비가 오지 않기에 기우제를 드리기로 했다 합시다. 그런데 대표가 있어야 되니까 대표 한 명을 뽑자, 할 때 푹푹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건전한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뽑는다면 그 중에서 제일 바보, ‘백 원만! 백 원만!’ 하고 쫓아다니는 제일 바보를 뽑아서 거기에 성신이 임해버리니까 이 바보가 얼마나 바보인지 장로들의 말이라도 듣지 않고 누구 말도 안 듣고 그저 성신이 움푹 썩워진 그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군사들이 많이 와도 얼마나 쪼다인지 ‘몇 명이 왔는데?’ ‘3만 2천명입니다.’ ‘보내라.’ 2만 2천명 보내버리고 ‘얼마나 남았는가?’ ‘만 명 남았습니다.’ ‘그것도 많다.’ 나중에 다 보내고 3백 명을 가지고 전쟁하는 이런 바보 쪼다가 어디 있어요. 숫자 많아도 지금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오는 사람도 다 보내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바보로 사십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힘없이 산다고 하지요. 힘이 있어야 푹푹하지요.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은 다 힘 모으고 푹푹한 놈 되라고 공부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믿는 예수님은 힘 쪽 뺏습니다. 힘을 찾은 사람은 예수님 주변의 열두 제자였어요. 힘 찾고 또 찾다가 더 힘센 놈 나오니까 돌아간 사람도 있고. 베드로는 되도 않는 칼을 들고 설치고. 제까짓 게 칼 들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주여, 제가 보디가드 하겠습니다.’ ‘에라이, 칼로 서는 자 칼로 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시켜주면서도 절대로 그 영광을 인간에게 빼앗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국가가 온전한 국가가 되려면 하나님이 죄인을 건진다는 식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간음죄, 살인죄, 철저히 죄인중의 죄수가 되는 인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뿐더러 그 가문을 다윗의 영원한 자손으로 고정시켜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에서 두 종류의 무화과열매가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후에 거기서 남쪽과 북쪽 두 종류의 나라가 갈라져 나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속히 망해버리고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망할 참인데 설마 유दान라에서 또 갈라지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저렇게 망해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여겼던 유다에서 또 갈라집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갈라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갈라지느냐? 무화과나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이 좋은 무화과인가를 보라는 말이지요.

‘이 약속의 땅에서 절대로 버텨야 된다.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그것이 곧 망하는 것이다.’ 하면서 망해야 구원되는 줄도 모르고 안 망해야 구원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방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악한 무화과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가 9절에 나오는데 “치욕을 당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은 무화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에서 둘로 갈라진 그것을 다시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 하나로 만드는 출발점에 서게 돼요. 어떻게?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우리 고향에서 쫓겨나도 싸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기에 다 모이세요.’라고 불러대는 거예요. 그제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갈라졌으나 유대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는 유대와 이방인들 따로 분류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는데 그 통합하는 기준이 그냥 사람이라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끼리는 똑같다고 서로 서로 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쳐서 유대인을 보고 유대인도 십자가를 거쳐서 이방인을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쳐서 이방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방인을 욕했지만 욕할 자격이 못된다.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이었지만 포로 잡혀간 뒤에 다 흩어지고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해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까불다가는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도 망하는데 언약 밖의 이방인인 우리는 마땅히 망해야지.’라는 것을 양쪽 다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리를 재해석하고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나는 망해도 싸.’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감하고 실감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무화과나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그것이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되기 쉽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모든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참 교회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죽어도 아마 낙원 가 있을 걸요. 제가 십자가마을에 글을 하나 썼어요. <마귀는 마귀다워야 된다>는 글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마지막에 올린 댓글이 이겁니다. ‘성추행한 목사가 교회를 사임했다.’ 할 때 제가 한 이야기는 뭐냐, 사임했다고 해서 그 인간성이 달라지지 않는데 왜 사임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복음도 모르는 목사니까 그렇지요.’라고 비난을 하는데 제가 그 목사 비난하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군 공격하게 되면 공격하는 쪽이 훌륭하고 우월하고 착해 보입니다. 공격을 받고 비판받는 쪽이 상대적으로 죄가 더 있어 보이고요. 개인이 개인을 공격하면 그렇게 되는데 제 글은 그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분위기를 공격하는 영적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싸움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적인 문제로 간주했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문제입니다.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다 간음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간음했다고 좀 봐주고 진짜 간음했다고 좀 안 봐주고, 하나님에게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마음으로 간통한 것은 봐주고 진짜 간통한 것은 안 봐주고 하는 이것은 인간들끼리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기준이지 진짜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참된 교회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이것은 뭐냐 하면, 누가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흠뻑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또 몇 년 후에 마음속으로라도 간음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같은 아담의 태생들이 뭐가 다른지? 다 똑같지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데 이것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의 그 대목이 길기 때문에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대목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너희는 반드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나라의 우상을 섬길 것이다.’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꼴좋다고 놀리는데 신명기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망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방나라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네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좋다고 까불지만 결국 네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라고 할 때 그것이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

면 그게 바로 좋은 무화과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뭘 안 그래요.

그렇게 안할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우리가 글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까불다가 쫓겨났구나.’ 하지 만일에 우리 삼촌이나 조카나 아버지나 자식이 이렇게 포로 잡혀서 끌려가보세요, 눈에 하나님이고 뭐고 안보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탈북해서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안받아주면 청와대 앞에서 1인 데모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이 뭐냐. 수치에서 오는 공포입니다. 모든 드라마, 문학작품, 소설이나 영화나 설교나 이 모든 것, 부글부글, 흡사 사이다병을 마구 흔들어서 거품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 부끄러움, 수치를 틀어막으려는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공포마저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무화과는 반대로 동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라가 주거든요. 본문에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혼자 포로 잡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서 너와 함께 포로 잡혀가줄게.’라고 하시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수치, 그 무서운 수치를 늘 그 때마다 다 없애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에 있는 모든 범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걸 어깁니다.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없다, 죄 없다 해 주시는 분이 동행하니까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내가 예수님을 동행시켜서 나오는 족족 다 용서하는데 누가 내 백성을 죄 있다 하리요.’ 환란? 곤고? 핍박?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너희에게 실패했다는 부끄러움을 유발할지 모르지만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망해도 먹는 것 입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뱃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진작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살아 있고, 우리는 지옥 가야되는데 웬 은혜인지’를 늘 생각하신다면 참 좋은 무화과나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매달려 보니 강도가 따로 없고 창녀가 따로 없고 우리가 죄인 중에 죄수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행하시는 주님 덕분에 그 무서운 수치가 사라지고 정정당당하게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